

올해의 한 책 '지적 대화를 위한...' :제로편'

전남대 개교 기념식서 선포식
5주간 지역민 투표 통해 선정
인류 사상사 중요 지식 조명
특 콘서트·문학기행 등 진행



전남대가 진행한 올해의 한 책 투표에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편'이 선정됐다. 최근 개교 기념식에서 펼쳐진 한 책 선포식 장면. <전남대 제공>

"위대한 스승은 수많은 시대와 장소에서 탄생했다. 그중에서 특히 경이로운 시기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축의 시대'라 불리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에 따르면 축의 시대는 인류 정신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된 시대였다.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 고타마 싯다르타가 등장했고, 중국에서는 노자, 공자가 활동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가 태어났다."

'광주전남이 읽고 푼다' (광주전남 특) 한 책에 채사장 작가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편' (웨일북)이 선정됐다.

전남대는 최근 개교 기념식에서 2020 올해의 한 책으로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편'을 선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한 책 선정은 전남대를 비롯한 광주전남 18개 대학이 참여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3월, 교수, 사서 등으로 구성된 '한 책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도서 5권을 선정해 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학생을 비롯한 지역민 투표를 통해 이 책을 최종 선정했다.

책은 지적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접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겨울 출간해 밀리언셀러에 오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2권)의 후속편이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권은 역사와 경제, 사회, 윤리 등을 다루었으며 2권은 철학과 과학, 예술, 종교 등을 아울렀다. 전자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세계를 바라보았다.

1권과 2권은 양분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이원적 시각 이전의 일원적 시각이 필요하다. 채사장은 노자와 공자, 인도와 동양, 부처의 사상은 세속과 탈속의 균형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세계의 실체는 나의 마음이며 나의 마음을 통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다. 당대 스승들은 자아와 세계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신비를 통찰했으며 이를 '범아일여', '노와 덕', '일체유심조' 등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저자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제로'는 '모든 지식의 시작'을 전제하며 사상들의 연결을 뜻한다.

저자는 "내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판단중지 한 후, 내면의 가려진 대륙을 향해 발을 내디뎌 보자.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 깊은 곳에 출구가 있다고, 그 출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으니"라고 강조한다.

한편 전남대 도서관(관장 장우권)은 향후 작가 초청 특 콘서트(9월), 독서클럽 운영(7-12월), 테마도서 전시회(9월), 한 책 도서교과환전(9월), 한 책 문학기행(10월), 독서후기 공모전(11월), 한 책 독서퀴즈(12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있다. 왜 위대한 스승들은 축의 시대에 등장했을까.

"자연에서 태어나 넓은 들판을 떠돌던 인류는 이 시점부터 거대한 도시에서 태어나 문화와 상징 체

계를 살아가게 되었다. 도시 생활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혔고 경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폭력과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저자인 채사장은 노자와 공자, 인도와 동양, 부처의 사상은 세속과 탈속의 균형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세계의 실체는 나의 마음이며 나의 마음을 통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다. 당대 스승들은 자아와 세계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신비를 통찰했으며 이를 '범아일여', '노와 덕', '일체유심조' 등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저자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제로'는 '모든 지식의 시작'을 전제하며 사상들의 연결을 뜻한다.

저자는 "내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판단중지 한 후, 내면의 가려진 대륙을 향해 발을 내디뎌 보자.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 깊은 곳에 출구가 있다고, 그 출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으니"라고 강조한다.

한편 전남대 도서관(관장 장우권)은 향후 작가 초청 특 콘서트(9월), 독서클럽 운영(7-12월), 테마도서 전시회(9월), 한 책 도서교과환전(9월), 한 책 문학기행(10월), 독서후기 공모전(11월), 한 책 독서퀴즈(12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연에서 태어나 넓은 들판을 떠돌던 인류는 이 시점부터 거대한 도시에서 태어나 문화와 상징 체

대의 오월 정신을 각각 글로 표현했다.

문화현장에는 김정희 시인이 제4회 서호 시화전에 출품한 '꽃이 진다. 사진처럼' 시가 수록됐으며, 박흥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전일빌딩 245, 문화콘텐츠로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광주일보와 호남언론의 산실이자 역사적 사건과 늘 함께 했던 전일빌딩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문화 청년그룹에서는 독립큐레이터팀 장동복컬티브를 결성한 이하영 작가의 활동을 소개하고 문화리뷰는 김원경 공동점 기획위원이 '나 게 있음에 감사하오'를 읽고 난 후 리뷰를 들려준다.

문화전단에서는 임영진 전남대 교수가 마한역 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을, 주홍 작가가 코로나 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광주 무대

광주오페라단 정기공연
25~28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오페라단(단장 김기준)이 제45회 정기공연 오페라 '코지 판 투테' (Cosi Fan Tutte)를 연다. 25-27일 오후 7시 30분, 28일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는 우리나라 말로 '여자는 다 그래'라는 뜻이며 연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의 약혼녀를 서로 유혹하는 내용이다.

남편의 미묘한 심리를 다룬 '코지 판 투테'는 19세기 당시 주제가 가볍고 사건 전개가 장난스럽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모차르트의 후기 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다.

공연은 2막 3장으로 구성됐으며 연출은 이범로가 맡았고 김병무 호남신학대 겸임교수가 지휘봉을 잡는다. 음악은 클라리넷·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합창은 광주오페라합창단이 함께한다.

피오르달리지 역에 이경은·나혜숙·유한나·장희정이 출연하며 토라벨라 역은 민숙연·김숙영·임지현·문주리가 맡았다. 데스피나는 임현진·장마리아·신은선·이지현이 연기하고 페르란도 역에는 이상화·이성우·신동민, 김재일이 출연한다. 굴리엘모는 김경천·김지영·박성훈이 돈 알폰소는 박영환·김일동이 연기한다.

한편, 1982년 창단한 광주오페라단은 김기준 단장을 비롯해 11명의 운영위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1983년 이듬해 창단공연으로 '춘향전'을 무대에 올린 것을 필두로 '토스카', '라보엠', '돈 카를로',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리골레토', '카르멘', '아이다' 등 그랜드 오페라와 '배비장', '김치' 등 창작오페라 공연을 비롯, 38년간 제44회의 정기공연을 가진 바 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VVIP석 10만원,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010-3646-5766.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광주오페라단이 제45회 정기공연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25~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다. 사진은 2017년 선보인 '피카로의 결혼' 공연 모습.

명현 국립남도국악원 4대 원장 취임

명현(사진) 학예연구관이 지난 10일 국립남도국악원 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명 원장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에서 국악이론을 전공했으며 2002년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진흥과, 기획관리과에서 일했고,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 생활 동안 국악에 대한 학술 연구와 아카이빙, 교육 활성화 등에 힘써 왔으며,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남도국악원이 전남



지역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 원장은 "지역에 기여하고 현장을 지원하며 국민의 문화심터를 기관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발전 방안은?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 발간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및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최근 발간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재단)의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통권 49호)는 민선 7기 문화정책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김하림 조선대교수, 김기광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 문화연구실장, 김양근 전통문화연구회 일수 대표, 윤준혁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고



선주 광주일보 문화특집 부장이 각각의 견해를 개진했다.

이번 호는 재단 정광민 부이사장이 '옛집에 담긴 그리움의 이유'를 주제로 문을 열며,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김미정 쫓샷 대

표의 인터뷰가 실렸다.

문화전단에서는 임영진 전남대 교수가 마한역 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을, 주홍 작가가 코로나 시

대의 오월 정신을 각각 글로 표현했다.

문화현장에는 김정희 시인이 제4회 서호 시화전에 출품한 '꽃이 진다. 사진처럼' 시가 수록됐으며, 박흥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전일빌딩 245, 문화콘텐츠로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광주일보와 호남언론의 산실이자 역사적 사건과 늘 함께 했던 전일빌딩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문화 청년그룹에서는 독립큐레이터팀 장동복컬티브를 결성한 이하영 작가의 활동을 소개하고 문화리뷰는 김원경 공동점 기획위원이 '나 게 있음에 감사하오'를 읽고 난 후 리뷰를 들려준다.

문화전단에서는 임영진 전남대 교수가 마한역 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을, 주홍 작가가 코로나 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교보문고, 상반기 좋은 책 재발견 독자 투표

교보문고는 '2020 독자의 선택: 상반기 좋은 책의 재발견'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상반기 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내용이 좋지만 관심을 끌지 못한 책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판사와 관련 단체, 교보문고 직원이 1차로 추천한 213종을 토대로 교보문고 내부 선서위원회 최종 후보 10종을 선정했다.

후보 도서는 '목소리를 드릴게요', '소금 지방 산열',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배움의 발견',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동생 알렉스에게', '제주에서 혼자 살고 싶은 약해요', '진리의 발견', '웨인 티보 달콤한 풍경', '착취도시, 서울'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독자는 7월 14일까지 인터넷교보문고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 | | |
|--|---|--|--|
|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p> <p>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p> <p>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 <p>고 전 방</p> <p>동구 구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p> <p>도시락,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 <p>퀸 타로카드</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p> <p>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p> <p>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 <p>신신 예술의 집</p> <p>동구 구동 예술의거리</p> <p>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
| <p>장 어 수 산</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아)</p> <p>무항생제 경어사용</p> <p>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p> <p>신용부위</p> <p>☎ 062)412-1961, 010-5828-1961</p> | <p>미가한우명가</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p> <p>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p> <p>☎ 061)333-0505, 010-4390-3366</p> | <p>무크 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p> <p>회사한복 신상품 대량 입고</p> <p>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p> <p>☎ 062)370-9258</p> | <p>한성꽃화원</p> <p>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화점)</p> <p>근조·축화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p> <p>☎ 061)334-3200, 010-3623-6921</p> |
| <p>남 문 냉 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p> <p>저온저장고제작·영업용 냉장·냉동수리</p> <p>에어컨 전문설치</p> <p>☎ 061)333-2779, 010-3610-2779</p> | <p>우리 뷔 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p> <p>(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p> <p>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p> <p>(회사·단체 장부 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p> <p>삼계탕전문점</p> <p>포장가능합니다.</p> <p>☎ 062)383-3454, 010-2106-0424</p> | <p>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동동33-3번지 남고문뒤편</p> <p>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p> <p>☎ 010-2617-3635</p> |
| <p>대성각 중화반점</p> <p>동구 무등로306-6(구시청뒤 도로변)</p> <p>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p> <p>전화주문시 신속배달</p> <p>☎ 062)430-5342</p> | <p>박 당 화 랭</p> <p>동구 구동 51-18번지(예술의거리)</p> <p>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 | |